

지역도시 거주자의 장소애착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강원동해안 3개 도시를 중심으로

안 치 순*

강원대학교

본 연구는 장소에 대한 인간의 경험적 성찰과 주관적 판단을 강조하는 인본주의 지리학의 핵심개념인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이 지역도시 거주자의 정신적 웰빙(mental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양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전통적으로 폐쇄성이 강한 지역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강원동해안에 위치한 3개의 지역도시(강릉시, 동해시, 삼척시)를 대상으로 지역도시 거주자의 장소애착이 삶의 만족이나 삶의 행복을 의미하는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장소애착과 정신적 웰빙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정립하고, 장소애착의 세 가지 변인(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사회적 유대감)이 정신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장소애착의 세 가지 변인(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사회적 유대감)이 정신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지역도시가 처해있는 인구감소, 도시소멸 등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장소애착 기반의 발전전략이 지역도시 거주자의 정신적 웰빙을 고양시키는데 핵심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주요어: 장소애착, 정신적 웰빙, 강원동해안, 지역도시거주자, 지역도시위기

* 주저자 : 안치순/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탄소·수소혁신기술연구소 전임연구원/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그린에너지연구원 604호

/Tel: 033-570-6851/E-mail: csan1212@kangwon.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지역의 중소도시들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경제 및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존산업의 쇠퇴, 산업화 이후 도시 노후화에 따른 공동체 기능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지역도시의 위기는 지역공동체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지역도시의 쇠퇴와 소멸이라는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도시의 고유한 정체성과 자긍심, 그리고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의 지역도시는 지역도시 거주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장소는 내게 얼마만큼의 행복감을 주는 곳일까?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공간으로서의 장소가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이라도 하듯이 일찍이 인본주의 지리학(humanistic geography)은 인간의 주체적 의지나 존재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느낌, 감정의 총체로서의 지리학을 표방하고 장소에 대한 인간의 의미와 느낌을 지리학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있다(권정화, 2005). 인본주의 지리학은 인간이 지각하는 다양한 장소감(sence of place)과 장소 정체성(place identity)을 회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를 통한 공감적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Cresswell, 2004). Lowenthal & Bowden (1976)은 인본주의 지리학의 거장인 John. K. Wright의 업적(Terrae incognitae: The place of imagination in geography, 1947)을 리뷰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지의 세계는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세

계(geographies of the mind)라고 주장하고, 지리학의 연구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성찰과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Johnston(1977) 또한 지리학이 방법론이 아닌 인식론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이 때 이미지(image), 상상력(imagination), 감정(feeling) 등이 지리학적 인식론의 토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인본주의 지리학은 공간과학의 의미로서의 지역(region)보다는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장소(place)를 강조하면서 장소감이라는 공간인식의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인본주의 지리학의 두 가지 핵심주제는 현상학적 접근으로 다양한 사회환경과 인간행태를 포함한 개인특성에 대한 연구와 인간이 갖는 의미에 따라 재구성된 지역과 자연환경의 분석이라 할 수 있다(Relph, 1997; Passi, 2003).

이와 같은 맥락 안에서 본 연구는 장소라는 공간과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인본주의 지리학의 핵심개념인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이 지역도시 거주자가 인식하고 있는 정신적 웰빙(mental well-being)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폐쇄성이 강한 지역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 위치한 3개의 지역도시(강릉시, 동해시, 삼척시)를 대상으로 지역도시 거주자의 장소애착이 삶의 만족이나 삶의 행복을 의미하는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1) 장소애착의 개념 및 구성요소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은 인간과 특정 장소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서적인 유대감 또는 정서적 결속(Giuliani & Feldman, 1993; Ryan, 2005)

을 지칭하는 말로써 특정 장소에 대해 갖게 되는 뿌리 깊은 애정의 정도를 의미한다. 장소애착은 인간과 특정 환경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특정 장소에 대한 감정적인 유대감(Brocato, 2006)이나 자신과 특정 장소를 정서적으로 동일시하는 성향을 설명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장소애착은 장소적 환경의 측면과 인간적 측면이 결합된 개념으로써 장소와 인간의 정체성 형성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으며, 특정 개인이 특정 장소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깊은 감정을 갖게 되는 감정적 또는 기능적 유대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Altman & Low, 1992).

장소애착에 대한 연구는 사람과 장소에 대한 연구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인본주의 지리학(humanistic geography)에 뿌리를 두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예컨대 Tuan(1974)의 장소를 사랑하는 감정(topophilia), Relph(1976)의 장소감(sense of place), Proshansky et al.(1983)의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등이 초기 연구의 대표적인 개념들이었고, 그 후 Williams & Roggenbuck은 텍사스 샌 안토니오에서 개최된 1989 NRPA Symposium on Leisure Research에서 장소애착이라는 개념을 '사람과 장소 사이에 감정, 인지 및 실천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일련의 연결상태'로 정의하였다(Williams & Roggenbuck, 1992: 32-33).

오늘날 장소애착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바, 우선 Stokols & Shumaker (1981)는 환경과 인간, 그리고 이에 지각하는 장소에 대한 의존상태(the state of place dependence), Feldman(1990)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특정 장소에 대한 심리적 태도와 심리적 경향에서 비롯된 애착심, Altman & Low(1992)은 환경에 대한 인지와 실제적 행동이 통합되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환경에 대한 반응, Brown & Perkins(1992)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 안전의 느낌과 존중, 장소와 관련된 소속감, Raymond et al.(2010)은 인

간과 장소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기능적 유대감 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와 개인 사이의 감정적 또는 정서적 유대감, 그리고 Hernández et al.(2007)은 자신이 있고 싶어 하고 안전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특정 지역에 대하여 가지는 결속 또는 정서적 유대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장소애착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기 전에 인본주의 지리학에서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리해보면, 영국의 인문지리학 사전은 장소를 '사람이나 사물에 의해서 점유된 지리적 공간의 일부분'(홍윤주, 2011)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소에 대한 정의에 내포되어 있는 세 가지 요소는 첫째,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적 배경, 즉 위치(location), 둘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배경을 포괄하는 지리적 지역(location area), 셋째, 감정의 지방적 구조라 할 수 있다(Agnew, 1987).

따라서 장소란 인간활동의 무대이며 인간의 감정이 수렴되는 곳(Johnson et al., 1994)으로써 공간적 요소와 비공간적 요소인 인간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다. 장소애착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장소애착에 대한 개념정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장소애착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장소애착에 내포되어 있는 구성요소에 대한 다양한 논의 속에서 공통적인 접근방법은 정서적인 애착을 의미하는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과 기능적인 애착을 의미하는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장소애착을 설명하는 접근방식(Moore & Graefe, 1994; Williams et al., 1995; Williams & Vaske, 2003; Kyle et al., 2005; Brocato, 2006; Brown & Raymond, 2007; Su et al., 2011)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정 장소에 대한 정서적인 애착을 의미하는 장소정체성은 특정 장소에 대한 감정적 애착(affective attachment)을 기반으로 특정 장소에 대한 소속감, 상징성, 친밀성 등의 의미로 정의되고

있고(Proshansky et al., 1983), 물리적인 환경을 고려한 심미적인 사고를 통해 장기기억으로 이어지는 감정의 몰입상태라 할 수 있다. 한편 특정 장소에 대한 기능적 애착을 의미하는 장소의존성은 개인이 자신을 기능적으로 특정 장소에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을 의미하고(Kaltenborn, 1997), 특정 장소가 개인의 특정 활동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기능으로 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만족시키는 특정 장소와 관련된 애착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Devine-Wright(2009)는 장소애착의 다차원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적, 집단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장소애착의 맥락을 역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Raymond et al.(2010)과 Larson & Krannich(2016)는 장소애착이 개인적 맥락(personal context), 공동체적 맥락(community context), 그리고 자연환경적 맥락(natural environment context)이란 3차원 맥락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개인적 맥락은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과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의 개념을 활용하여 장소애착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체적 맥락은 이웃에 대한 애착(neighborhood attachment), 소속감(belongingness), 친밀감(familiarity)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개인과 공동체 간의 감정적 연결고리, 즉 사회적 유대감에 초점을 맞춰 장소애착을 설명하고 있다. 자연환경적 맥락은 자연과의 연결성(connectedness to nature), 환경정체성(environmental identity), 자연과의 친화력(affinity to nature) 등을 중심으로 장소에 대한 경험을 통한 자연과의 감정적 연결성을 강조하여 장소애착을 설명하고 있다.

2) 정신적 웰빙의 개념 및 구성요소

정신적 웰빙(mental well-being)은 긍정적인 정신건강의 상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정신건강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삶에

서 겪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생산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WHO, 2004).

일반적으로 정신적 웰빙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의 두 가지 흐름은 헤도니아(hedonia) 관점과 유대모니아(eudaimonia) 관점으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그리스 시대에서 기원하고 있는 웰빙에 대한 헤도니아 관점은 정신건강이 감정과 정서에 의해 결정되며, 행복감, 삶에 대한 만족감, 삶에 대한 관심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Keyes(2007)는 정신건강을 삶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기분이 좋은 상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이를 정서적 웰빙(emotional well-being)이라고 칭하였다.

한편 유대모니아 관점은 자신의 잠재력을 삶에서 실현하는 것을 웰빙의 주요요소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Ryff(1989)는 개인적으로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는 상태를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으로 명명하고, 심리적 웰빙은 자기수용, 삶의 목적, 자율성,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환경에 대한 제어력, 개인적 성장 등 6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Keyes(1998)는 사회적 영역에서 잠재력을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건강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사회적 웰빙(social well-being)으로 명명하고, 사회적 웰빙은 사회적 응집, 사회적 수용, 사회적 자기실현, 사회적 기여, 사회적 통합 등 5가지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한편 정신적 웰빙은 헤도니아 웰빙과 유대모니아 웰빙 등과 같이 시대와 학자마다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지만,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공통적인 추세는 정신적 웰빙이 헤도니아 웰빙과 유대모니아 웰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Keyes et al., 2008; Keyes, 2013; 임영진, 2012). Keyes 등(2008)에 의하면, 정서적 웰빙은 삶에 대한 흥미, 행복감, 그리고 만족감을, 심리적 웰빙은 자신에 대한

수용성과 긍정적인 태도, 타인과의 신뢰로운 관계성, 삶의 목적과 의미성, 잠재력과 성장감을, 그리고 사회적 웰빙은 타인과 사회에 대한 수용성과 긍정적인 태도, 공동체(이웃, 사회)의 소속감, 사회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신뢰감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정신적 웰빙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웰빙은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감, 즐거움, 편안함 등의 긍정적인 요소와 두려움,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Diener, 1984), 긍정적인 정서를 보다 강하고 자주 경험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정서를 약하고 드물게 경험할수록 정서적 웰빙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웰빙은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기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환경의 통제, 긍정적인 인간관계, 개인적인 성장, 자율성, 인생의 목적, 자기수용의 태도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Ryff, 1989),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긍정적이고, 자신의 삶에 대해 늘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심리적 웰빙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웰빙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기능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수용, 사회적 실현, 사회적 기여, 사회적 일치, 사회적 통합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Keyes, 1998), 사회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지역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웰빙은 높다 할 수 있다.

3. 선행연구의 특징적 동향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장소애착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 동향과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NRF)이 운영하고 있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를 이용하여 KCI 논문을 검색하였다(검색일: 2022년 2월 15일). 1995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발표된 KCI 논문제목에 장소애착의 개념이 명시된

논문의 수는 총 429편으로서 관광(휴양·레저 분야 포함) 분야의 학술지가 76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분야의 학술지는 관광학연구(11편), 관광레저연구(11편), 관광연구논총(11편), 관광연구(7편), 관광경영연구(7편), 관광연구저널(6편), 여가관광연구(4편), 이벤트컨벤션연구(4편),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3편), 호텔리조트연구(3편), 동북아관광연구(2편), 한국산림휴양학회지(1편), 기타(4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공간·조경, 도시계획, 주거·건축, 지역개발 분야의 학술지가 50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분야의 학술지는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7편), 한국조경학회지(6편), 도시설계(6편), 도시계획(5편), 한국지역개발학회지(5편), 한국주거학회논문집(4편), 한국지역지리학회지(4편), 도시행정학(3편), 지역사회연구(3편), 한국지리학회지(3편), 지방행정연구(3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체육 분야의 학술지(한국체육과학회지, 한국사회체육학회지, 한국체육학회지)가 8편, 교육 분야의 학술지(사회과교육, 아동학회지, 한국영유아보육학)가 5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CI 논문의 주제는 분류가 부정확한 기타가 319편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사회과학이 52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문학(18편), 공학(15편), 예술체육(8편), 농수해양(7편), 교육(6편) 등의 순이었고, 기간별로는 1995년 이후 2010년까지는 매년 10편 내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25편 내외,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50편 내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CI 논문에서 장소애착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의 주제나 내용의 특징은 장소애착의 역할에 관한 연구와 장소애착의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고, 두 가지 유형이 수적 우열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애착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장소애착이 지역 거주자와 방문객에게 왜 중요

한가를 설명하기 위한 논문들이었고, 장소애착의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는 장소애착이 정신적 작용으로서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논문들이었다. 한편 장소애착을 연구하는 방법은 전반적으로 질적 연구보다는 양적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장소애착 관련 선행연구의 경우,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양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연구의 분야나 대상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관광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이나 방문객과 관광의 객체인 관광지나 관광시설물에 초점을 두고 장소애착의 주체를 다루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즉 장소애착의 연구에서 특정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의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장소애착에 관한 선행연구를 주제 내지 내용의 관점에서 두 가지(장소애착의 역할과 장소애착의 형성요인)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우선 장소애착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는 장소애착의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보다 양적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소애착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지역 및 관광 개발에 대한 태도나 지지도, 주민참여, 그리고 친환경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고, 방문객에게는 장소에 대한 충성도 및 재방문 의도(Yuksel et al., 2010), 친환경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uksel et al., 2010; 서원석·이보배, 2012). 한편 장소애착의 형성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장소애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로서 거주지의 환경특성, 거주지가 개인에게 주는 편익, 거주기간, 개인의 특성 등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Knez(2005)와 Lewicka(2008)는 장소애착의 형성요인으로 거주지의 환경특성, 특히 물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Knez(2005)는 거주지의 물리적 환경특성이 장

소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도시와 교외 거주자의 애착수준을 비교하였고, Lewicka(2008)는 역사도시 거주자와 일반도시 거주자 간의 애착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정 지역의 거주자가 아닌 방문객 내지 관광객의 장소애착 형성요인을 규명하고 있는 연구는 방문지의 환경특성, 방문지에 서의 활동특성, 방문지가 주는 편익, 방문동기, 그리고 개인적 특성 등이 장소애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방문자의 장소애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특성으로는 장소의 매력성(Hou et al., 2005), 장소의 이미지(Prayag & Ryan, 2012), 환경지각(Kyle et al., 2004) 등을 들 수 있으며, 방문지에서의 활동특성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활동의 관여도(Hou et al., 2005), 활동의 전문화(Moore & Graefe, 1994) 등이 방문자의 장소애착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Lopez-Mosquera & Sanchezm(2013)과 이보미 외(2013)는 방문자가 특정장소에 대해 느끼는 물리적, 심미적, 그리고 사회적 편익의 유무 내지 크기에 따라 장소에 대한 애착이 다르게 형성되고, Kyle et al.(2003)은 방문자의 개인적 특성, 즉 방문횟수, 거주지와 방문지와의 거리, 나이, 성별 등에 따라 장소애착의 형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규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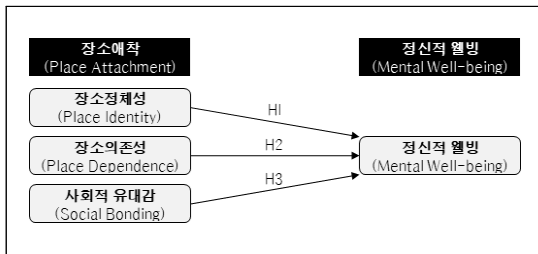
그러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거주 장소는 삶의 공간이자 삶의 터전으로써 개인의 생계 활동은 물론 공동체 활동을 영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지역의 중소도시의 경우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대도시로의 이도·이촌 현상이 가속화되고, 그 결과 지역도시는 인구감소는 물론 인구고령화라는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한계, 즉 지역도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방문자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지역도시 거주자에 초점을 맞춘 장소애착에 대한 연구, 특히 장소애착이 거주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안에서 이와 같

은 연구를 통해 지역도시가 안고 있는 이도·이촌 문제, 인구의 감소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절실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장소애착에 대한 연구의 대상을 지역도시 거주자로 설정하고, 지역도시 거주자의 장소애착과 정신적 웰빙과의 관계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강원동해안에 소재한 3개의 지역도시(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거주자의 장소애착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아울러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 내포된 구성개념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 장소정체성은 정신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 장소의존성은 정신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3. 사회적 유대감은 정신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은 특정 장소에 대한 소속감, 상징성, 친밀성 등 정서적 내지 감정적 애착의 정도로 정의하였고(Proshansky et al., 1983; Williams et al., 1992; Kaltenborn, 1997; Su et al., 2011),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은 특정 장소에 대해 개인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Schreyer et al., 1981; Williams et al., 1992; Kaltenborn, 1997; Williams & Vaske, 2003).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social bonding)은 특정 장소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이나 멤버십 등 정서적 내지 감정적 연결상태로 정의하였다(Kasarda & Janowitz, 1974; Hay, 1998; Hidalgo & Hernández, 2001; Perkins & Long, 2002). 아울러 본 연구에서 장소애착을 구성하는 3개의 하위변인에 대한 측정은 <표 1>과 같이 Proshansky et al.(1983), Williams & Roggenbuck(1989), Williams & Vaske(2003), Raymond et al.(2010), Ramkissoon et al.(2013)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요인별 5개 문항씩 총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정신적 웰빙(mental well-being)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신건강의 상태로서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이 높은 상태로 정의하였다(Ryff, 1989; WHO, 2004; Keyes, 2007; Keyes et al., 2008). 아울러 정신적 웰빙에 대한 측정은 Keyes 등(2008)이 개발하고 임영진 등(2012)이 번안한 한국판 정신적 웰빙 척도(K-MCH-SF)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총6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아울러 모든 변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표본설계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전국의 지역도시 중 강원동해안에 소재한 3개 지역도시(강릉, 동해, 삼척) 거주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설계하였다. 전체 표본의 수는 총 250개로 설계하였으며, 3개 지역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수에 비례하여 강릉 130개, 동해 70개, 삼척 50개로 지역별로 표본을 우선 할당하고, 2021년 10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일부는 1대1 면접방식으로, 일부는 기관 및 조직, 그리고 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일괄 배포·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배포된 설문지 중 236부가 회수되었고, 응답내용이 불성실하여 사용할 수 없는 8부를 제외한 228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IBM SPSS Statistics 20.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1. 조사표본의 일반특성

조사표본의 일반특성은 <표 2>와 같다. 우선 성별의 경우, 남성이 112명(49.1%), 여성이 116명(50.9%)이었고, 연령의 경우, 50대가 76명(33.4%), 40대가 63명(27.6%), 30대가 38명(16.7%)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졸이 114명(50.0%), 고졸이 82명(36.0%)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농림어업이 38명(16.7%)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자영업에서 학생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200~300만원이 63명(27.6%), 300~400만원이 49명(21.5%) 등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강릉시가 118명(51.8%), 동해시가 65명(28.5%), 삼척시가 45명(19.7%)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측정

구분	측정항목	문항수	선행연구	비고
장소 정체성 (place identity)	자연과의 일체감, 환경과의 일체감, 정서적 편안함, 자연과의 친화력, 자연과의 연결성	5	Proshansky et al.(1983), Williams et al.(1992), Kaltenborn(1997), Su et al.(2011)	리커트 7점 척도
장소 의존성 (place dependence)	기능적인 연계감, 개인 활동의 촉진감, 개인 욕구 및 목표 충족감, 생계활동과의 연계성	5	Schreyer et al.(1981), Williams et al.(1992), Kaltenborn(1997), Williams & Vaske(2003)	
사회적 유대감 (social bonding)	이웃에 대한 애정, 사회적 소속감, 이웃과의 친밀감, 사회적 문제해결 의식, 공동체 가치의 공유의식	5	Kasarda & Janowitz(1974), Hay (1998), Hidalgo & Hernandez (2001), Perkins & Long(2002)	
정신적 웰빙 (mental well-being)	행복감, 삶에 대한 만족감, 타인과의 신뢰로운 관계, 개인적인 성장감, 공동체의 소속감 및 사회적 기여감	6	Keyes et al.(2008), Young-Jin Lim et al.(2012)	

<표 2> 조사표본의 일반특성(N=228)

구분	범주	빈도 (명)	비율 (%)	구분	범주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	112	49.1	직업	자영업	27	11.8	
	여	116	50.9		회사원	23	10.1	
연령	19~29세	22	9.6		공무원	27	11.8	
	30~39세	38	16.7		군인경찰	6	2.6	
	40~49세	63	27.6		농림어업	38	16.7	
	50~59세	76	33.4		판매서비스업	29	12.7	
	60~69세	22	9.6		단순노무직	32	14.0	
	70세이상	7	3.1		전업주부	17	7.5	
	학력	중졸이하	17		7.5	학생	25	11.0
		고졸	82		36.0	기타	4	1.8
대학졸		114	50.0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6	15.8	
					100~200만원	45	19.7	
대학원졸		15	6.5		200~300만원	63	27.6	
					300~400만원	49	21.5	
거주 지역	강릉시	118	51.8		400만원 이상	35	15.4	
					동해시	65	28.5	
				삼척시	45	19.7		

2. 측정도구의 검증

1)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내적 일관성 분석을 통하여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측정항목들의 요인적재량이 .6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각각의 측정항목들이 4개의 해당요인을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된 누적 총분산은 81.038%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ronbach's α 값은 .927

에서 .972까지의 범위 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모든 구성개념에서 매우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구분		정신적 웰빙	장소 정체성	장소 의존성	사회적 유대감	Cronbach ' α
정신적 웰빙	F23	.938	-.130	-.070	-.054	.972
	F25	.921	-.078	-.081	-.097	
	F24	.919	-.129	-.090	-.088	
	F26	.907	-.117	-.095	-.064	
	F27	.901	-.121	-.069	-.015	
	F22	.900	-.114	-.142	-.098	
장소 정체성	F08	-.190	.821	.269	.193	.953
	F07	-.169	.812	.241	.182	
	F09	-.175	.811	.332	.196	
	F10	-.169	.757	.388	.286	
	F11	-.111	.735	.442	.176	
장소 의존성	F14	-.092	.254	.828	.247	.927
	F15	-.084	.322	.815	.168	
	F16	-.145	.387	.745	.116	
	F13	-.112	.297	.735	.262	
	F12	-.197	.312	.658	.313	
사회적 유대감	F18	-.089	.034	.134	.769	.941
	F20	-.073	.316	.267	.722	
	F19	-.112	.321	.305	.703	
	F17	-.157	.390	.250	.695	
	F21	.007	.340	.273	.686	

2)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공선성

본 연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가설의 방향성과 다중공선성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상관관계의 분석결과, 유의수준 $p < 0.01$ 에서 가설의 방향과 동일한 정(+)의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상관계수의 값

이 0.8를 넘지는 않았지만 일부 상관계수의 값이 0.6~0.7로 높아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0.1 이상이었고 VIF는 3.0 이하로 나타남으로써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urbin-Watson = 1.877).

<표 4> 상관관계분석 결과

구 분	장소 정체성	장소 의존성	사회적 유대감	정신적 웰빙
장소 정체성	1			
장소 의존성	.745***	1		
사회적 유대감	.663***	.667***	1	
정신적 웰빙	.356***	.312***	.277***	1

p* < 0.1, p** < 0.05, p*** < 0.001

3. 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장소애착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이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사회적 유대감 등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다.

우선 장소정체성과 정신적 웰빙과의 관계는

p < 0.01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설 H1은 지지되었다($\beta=0.516, t=11.143$). 둘째, 장소의존성과 정신적 웰빙과의 관계는 p < 0.01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설 H2는 지지되었다($\beta=0.416, t=9.109$). 셋째, 사회적 유대감과 정신적 웰빙과의 관계는 p < 0.01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설 H3은 지지되었다($\beta=0.277, t=4.362$). 특히 강원동해안에 위치한 3개의 지역도시(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거주자들은 장소정체성($\beta=0.516$), 장소의존성($\beta=0.416$),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beta=0.277$) 등의 순으로 정신적 웰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는 장소에 대한 인간의 경험적 성찰과 주관적 판단을 강조하는 인본주의 지리학의 핵심개념인 장소애착이 지역도시 거주자의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특히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강원동해안에 위치한 3개의 지역도시(강릉시, 동해시, 삼척시)를 대상으로 지역도시 거주자의 장소애착이 삶의 만족이나 삶의 행복을 의미하는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표 5> 장소애착과 정신적 웰빙 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유의도	공차한계	VIF	판정
		B	표준오차						
정신적 웰빙	(상수)	5.166	.391		13.212				
	장소정체성	.546	.049	.516	11.143	.000	.396	2.527	[H1] 채택
	장소의존성	.419	.046	.416	9.109	.000	.392	2.551	[H2] 채택
	사회적유대감	.301	.069	.277	4.362	.000	.493	2.029	[H3] 채택

R²=0.440(aj. R²=0.433), F=58.645, p=.000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장소애착과 정신적 웰빙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모형을 정립하고,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 개의 연구가설, 즉 장소애착의 세 가지 변인(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사회적 유대감)이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정체성은 정신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516$, $t=11.143$). 따라서 장소정체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소는 거주지역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인간의 정서적 경험을 통해 감정적으로 갖게 되는 애착의 대상이 된다. 장소정체성은 물리적인 자연환경과 사회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통해 장소와의 일체감과 연결감, 장소에 대한 편안함과 안정감을 강화시켜 주고 궁극적으로는 지역도시 거주자의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도시의 독특한 환경과 지역도시 거주자의 친밀한 경험이 정서적, 감정적 애착을 높이고 일시적인 아닌 영속적인 삶의 자양분을 제공해줌으로써 지역도시 거주자의 정신적 웰빙에 강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장소의존성은 정신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416$, $t=9.109$). 따라서 장소의존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도시 거주자의 활동 공간이자 무대로써 특정 장소와의 기능적 연계성과 의존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장소에 대한 애착은 증가하고 정신적 웰빙 또한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강원동해안 지역은 동해 바다와 해변, 그리고 태백산맥의 동사면을 따라 발달된 산과 계곡을 배경으로 장소적 고유성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지역도시 거주자들은 산과 바다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수산업과 관광업 등 관련 산업에의 의존도는 물론 사회적 활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도시 거주자의 장소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높은 기능적 의존성이 정신적 웰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유대감은 정신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277$, $t=4.362$). 따라서 사회적 유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강력한 정서적 연결감과 공동체 구성원간의 특별한 인간관계는 지역도시 거주자의 정신적 웰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람들과의 유대가 없으면 그 장소는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웰빙도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거대한 외부자본의 유입에 의해 급변하는 지역도시는 기존사회가 갖고 있던 애뜻하고 깊이있는 정서적 공동체 정신이 약화되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파편화된 사회구조로 재편됨으로써 장소의 주요 가치 중의 하나인 사회적 유대감이 일부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지역도시가 처해있는 인구감소, 도시소멸 등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장소애착 기반의 발전전략이 지역도시 거주자의 정신적 웰빙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래서 현재 지역도시 거주자의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거주인구의 증가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오늘날 지역도시는 공통적으로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공공주택 및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관광단지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도시가 처해있는 경제 및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경우 흔히 보존이나 개발이나의 극단적인 논리싸움에 막혀 마치 블랙홀과도 같이 지역사회 전체가 빠져 들어감으로써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물리적 공간인 장소와 장소를 경험하는 주체인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장소애착의 개념을 통해 지역도시를 더욱 가치있게 만들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도시 방문객은 물론 지역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소애착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는 지역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대유행 기간 중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특정 개념의 측정을 위한 표준화 척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과정에서의 대인접촉의 위험성과 일상생활의 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단축형 척도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 재구성된 단축형 척도는 타당도와 신뢰도 등에 대한 일련의 검증과정을 충실히 이행했지만, 척도의 구성 및 측정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바탕으로 보다 적실성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통계적으로 통제하는 변수가 없이 연구모형이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석모형에 내포된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분석모델의 보완과 구조방정식 모형 등의 적용을 통한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정화(2005). 장소의 상실, 혹은 진성성의 상실? *문화와 환경*, 4, 214-217.
-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윝김)(2005).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 서원석, 이보배(2013). 한국 카지노산업의 변천 및 카지노 인식에 대한 변화 내용분석. *관광학연구*, 36(3), 103-128.
- 윤영호, 김미선(윝김)(2020). *공간과 장소*. 서울: 사이.
- 이보미, 오문향, 김자현(2013). 제주올레에서의 자연과의 교감과 편익인지가 장소애착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7(1), 215-235.
- 임영진, 고영진, 신희천, 조용래(2012). 정신적 웰빙 척도(MHC-SF)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31(2), 369-386.
- 홍윤주(2011). 골프참가자들의 골프장 장소귀속감 결정요인의 탐색 및 우선순위 분석.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Agnew, J. (1987). *Place and Politics*. Boston: Allen & Unwin.
- Altman, I., & Low, S. M. (1992). *Place Attachment*. New York: Plenum Press.
- Brocato, E. D. (2006). *Place Attachment*. Te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 Brown, B. B., & Perkins, D. D. (1992). Disruptions in Place Attachment. In I. Altman & S. M. Low (Eds.). *Place Attachment*. 279-304. New York: Plenum Press.
- Brown, G., & Raymond, C. M.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ttachment and Landscape Values. *Applied Geography*, 27(2), 89-111.
- Cresswell, T. (2004). *Place*.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 Devine-Wright, P. (2009). Rethinking NIMBYism.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9(6), 426-441.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Feldman, R. (1990). *Tourism and Place Ident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 A&M University College Station, TX.
- Giuliani, M. V., & Feldman, R. (1993). Place Attachment in a Developmental and Cultural Contex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3(3), 267-274.
- Hay, R. (1998). Sense of Place in Developmental Contex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8(1), 5-29.
- Helliwell, John F., Layard, R., Sachs, J., & De Neve, Jan-Emmanuel (eds.). (2020). *World Happiness Report 2020*.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Hernández, B., Carmen Hidalgo, M., Salazar-Laplace, M. E., & Hess, S. (2007). Place Attachment and Place Identity in Natives and Non-nativ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7(4), 310-319.
- Hidalgo, M. C., & Hernández, B. (2001). Place Attach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3), 273-281.
- Hou, J-S., Lin, C-H., & Morais, D. B. (2005). Antecedents of Attachment to a Cultural Tourism Destina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44(2), 221-233.
- Johnson, J. D., Snepenger, D. J., & Akis, S. (1994). Residents' Perceptions of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3), 629-642.
- Johnston, R. J. (1977). Urban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1), 118-129.
- Kaltenborn, B. P. (1997). Nature of Place Attachment. *Leisure Sciences*, 19(3), 175-189.
- Kasarda, J. D., & Janowitz, M. (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328-39.
- Keyes, C. L. M. (1998). Soci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1(2), 121-140.
- Keyes, C. L. M. (2007). Promoting and Protecting Mental Health as Flourishing. *American Psychologist*, 62(2), 95-108.
- Keyes, C. L. M. (2013). Promoting and Protecting Positive Mental Health. In C. L. M. Keyes (Ed.). *Mental Well-being*, 3-28. New York: Springer Science Business Media.
- Keyes, C. L. M., Wissing, M., Potgieter, J. P., Temane, M., Kruger, A., & van Rooy, S. (2008). Evaluation of the Mental Health Continuum-Short Form in Setswana-Speaking South African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5(3), 181-192.
- Knez, I. (2005). Attachment and Identity as Related to a Place and its Perceived Climat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5(2), 207-218.
- Kyle, G., Graefe, A., & Manning, R. (2005). Testing the Dimensionality of Place Attachment in Recreational Settings. *Environment and Behavior*, 37(2), 153-177.
- Kyle, G., Graefe, A., Manning, R., & Bacon, J. (2003).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y Involvement and Place Attachment among Hikers along the Appalachian Trail.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5(3), 249-273.
- Larson, E. C., & Krannich, R. S. (2016). A Great Idea, Just Not Near Me! Understanding Public Attitudes about Renewable Energy Facilities.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29(12), 1436-1451.
- Lewicka, M. (2008). Place Attachment, Place Identity and Place Memor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4(2), 213-225.

- Lopez-Mosquera, N., & Sanchezm, M. (2013).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Received Benefits and Place Attachment in Willingness to Pay and Loyalty in Suburban Natural Area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4(1), 27-35.
- Lowenthal, D., & Bowden, Martyn J. (1976). *Geographies of the Mi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oore, R. L., & Graefe, A. R. (1994). Attachments to Recreation Settings. *Leisure Sciences*. 16(1), 17-31.
- Paasi, A. (2003). Region and Pla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8(4), 475-485.
- Perkins, D. D., & Long, D. A. (2002). Neighborhood Sense of Community and Social Capital. In A. T. Fisher, C. C. Sonn, & B. J. Bishop (Ed.).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291-318.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Proshansky, H. M., Fabian, K. A., & Kaminoff, R. (1983). Place-Ident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 57-83.
- Ramkissoon, H., Smith, L. D. G., & Weiler, B. (2013). Testing the Dimensionality of Place Attachment and Its Relationships with Place Satisfaction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 *Tourism Management*. 36, 552-566.
- Raymond, Christopher M., Brown, G., & Weber, D. (2010).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4), 422-434.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td. Publishing.
- Ryan, R. L. (2005). Exploring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Experience on Attachment to Urban Natural Areas. *Environment and Behavior*. 37(1), 3-42.
- Ryff, C.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chreyer, R., Jacob, G., & White, R. (1981). Environmental Meaning as a Determinant of Spatial Behavior in Recreation. In J. Frazier & B. Epstein (eds.). *Proceedings of the Applied Geography Conferences*. 4, 294-300.
- Stokols, D., & Shumaker, S. A. (1981). People in Places. In J. H. Harvey (ed.). *Cognition, Social Behavior, and the Environment*. 441-48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u, H. J., Cheng, K. F., & Huang, H. H. (2011). Empirical Study of Destination Loyalty and Its Antecedent. *The Service Industries Journal*. 31(16), 2721-2739.
- Tuan, Y. (1974). *Topophilia*.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WHO (2004). *Promoting Mental Health*. Geneva: WHO.
- Williams, D. R., Patterson, M. E., Roggenbuck, J. W., & Watson, A. E. (1992). Beyond the Commodity Metaphor. *Leisure Sciences*. 14(1), 29-46.
- Williams, D. R., & Roggenbuck, J. W. (1989). *Measuring Place Attachment*. In Abstracts of the 1989 Leisure Research-Symposium. October 20-24. San Antonio, TX.
- Williams, D. R., & Vaske, J. J. (2003).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ment. *Forest Science*. 49(6), 830-840.
- Wright, J. K. (1947). Terrae Incognita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37, 1-15.

Yuksel, A., Yuksel, F., & Bilim, Y. (2010).

Destination Attachment. *Tourism Management*.

31(2), 274-284.

투고일자 : 2022. 05. 12.

심사일자 : 2022. 05. 30.

게재확정일자 : 2022. 06. 30.

The Effect of Place Attachment on Mental Well-Being of Local City Residents: Focusing on Three Local Cities Located on the East Coast of Gangwon-do

Chisoon A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place attachment, a core concept of humanistic geography that emphasizes human empirical reflection and subjective judgment on places, on mental well-being of local city residents. This study is based on a quantitative methodology and is focusing on three local cities(Gangneung-si, Donghae-si, and Samcheok-si) located on the east coast of Gangwon-do, which is traditionally recognized as one of the regions with strong closedness. In particular, this study is focused on empirically analyzing the effect of place attachment to one's residence area on mental well-being which means life satisfaction or life happiness. To this end,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the three variables(place identity, place dependence, social bond) constituting place attachment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mental well-being of local city resi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proposed theoretical model and hypothesis fits robustly. This findings imply that a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place attachment can be a key to enhancing the mental well-being of local city residents in crisis situations such as population decline and urban extinction that local cities are facing today.

Keywords: Place attachment, Mental well-being, East coast of Gangwon-do, Local city residents, Local city crisis